

## 인생의 계절

성경말씀: 삼상30:1-8

지난 2주 동안 연구 문제로 씨름하면서 겨우 풀었다. 나나 학생들 모두 한 고비를 넘겼다(밤을 새가며). 학생들과 점심 식사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바람직한 인생일까?

이재용, 이부진 등 삼성 가의 3대 세습, 과연 그들은 고통을 알까?

성경의 결론: 고통이 없는 인생은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

거기의 절정이 우리 예수님이다: 십자가 사건

이번 주에는 죽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과연 죽어서 해결될까? 현대 우울증 '인생의 계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 백성의 사람의 소망

### 다윗

다윗(David, 사랑받는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막내아들. 주전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출생 그의 생애는 삼상16:1-왕상2:46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총 42장).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역경과 위협을 잘 이긴 사람이다.

젊을 때에 그는 목동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대담한 삶을 살았다.

음악 하는 자로서 행동이 곧바르고 단정한 자로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 왕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때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울 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맑은 정신을 갖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방문하여 용맹스럽게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을 죽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

왕에게 와서 명예를 받고 군대를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었다.

왕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인해 유다의 광야로 피신하고 거기서 600여 명의 무리를 얻고 그들을 지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들어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여 아기스의 영접을 받았다.

그 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자기 땅으로 돌아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7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뒤에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조를 설립했으며 그의 가문은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다윗의 삶의 결론: 훌륭한 삶에도 불구하고 큰 죄들에 빠졌다. ★★★

여러 아내를 두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 다말과 압논과 압살롬 사건

압살롬과 세바와 아도니야의 반역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기근과 재앙, 요압의 범죄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시55:6).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였으며 백성을 불러 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였고 40년간 통치하다가 71세에 죽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

### 다윗의 상황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고 있다. 유다의 남부 도시 시글락에서(삼상27:6)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 함.

29:1, 블레셋은 아베크에, 이스라엘은 예스르엘에 진을 치고, 아기스와 다윗은 가드에 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반대하여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옴(3일 거리).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도시를 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감.

아말렉은 예서의 손자, 삼15장,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전멸(출17:8-16; 신25:17)

다윗과 600명은 모두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4절).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대패했다.

힘들면 울어야 한다. ★★★ 나의 켈거리 경험

### 두 종류의 반응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함. 어리석은 결정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다윗이 필요한 때다.

그를 죽이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이다.

감정보다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됨을 보고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분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곧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6절). ★★★

인생의 모든 고통은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지금은 에봇이나 제사장이나 우림과 둠뭇이 없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다. ★★★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좋은 교회의 필요성 ★★★

하나님의 은혜(삼상27:9,11과 비교)

### 인생의 계절

네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 자기 아들이 일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원했다.

그래서 멀리서 배나무를 바라보게 했다.

첫 아들은 겨울에 갔고 둘째는 봄에 셋째는 여름에 그리고 막내는 가을에 갔다.

첫 아들: 겨울, 그 나무가 보기 흉하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져 있다.

둘째 아들: 봄, 초록색 짙으로 덮여 있었다.

셋째 아들: 여름, 꽃이 만발하고 달콤한 냄새를 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이었다.

막내아들: 가을, 배가 열려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충만함이 있었다.

아버지의 말: 모두 그 나무의 일생 중 한 계절만 보았기에 다 옳다. ★★★

그러나 나무든 사람이든 한 계절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이 누구냐?’라는 본질과 삶의 쾌락, 기쁨과 사랑은 모든 계절이 끝났을 때 측정된다.

겨울에 포기하면 봄이 주는 장래성을 놓치게 되고 여름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성취도 놓치게 된다.

한 시절의 고통이 나머지 시절들이 주는 기쁨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한 번의 어려운 시절로 인해 판단하면 안 된다.

단순히 살자. 관대하게 사랑하자. 깊이 돌보자. 친절하게 말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

행복은 당신을 달콤하게 만들고, 시험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며, 슬픔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실패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며, 성공은 당신이 성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 ★★★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끝나면 반드시 천국의 계절이 열려야 한다. ★★★, 아이들, 청년들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암5:14).

### 예수님도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었다

사53:2-3, 사52:12-14

머리 돌 곳이 없었다. 겻세마네에서 그 잔을 피할 수 없기를 바라셨다.

히5:7-10, 고난을 통해 고난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다.

### 결론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이 다 인생의 계절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이것을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죄와 더러움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그분에게는 여전히 빈 자리가 남아 있다. 나오라. ★★★